

# 전라남도 일개 군 지역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에서 의 가족적응력, 결속력 척도(FACES III)와 가족 기능도 지수(Family APGAR Score) | 원저

김연표, 박훈기<sup>1,\*</sup>, 황환식<sup>1</sup>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sup>1</sup>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 FACES III and Family APGAR Score of Multicultural Family Marriage Female Migrant in Jeollanam-Do Province

Yeon-Pyo Kim, MD, Hoon-Ki Park, MD, PhD<sup>1,\*</sup>, Hwan-Sik Hwang, MD, PhD<sup>1</sup>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wasun Hospital, Hwasun, <sup>1</sup>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Background:** Within a recent few years, the number multicultural families had been increasing rapidly in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func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its determining factors.

**Methods:** The study subjects were 68 foreign women who had been married to Korean men and immigrated to Korea. All participants were registered in one of the three migration support centers in South Jeolla Province. They completed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hich evaluated the demographic information, FACES III, and the family APGAR scores. We compared their family function with that of the typical Korean families reported in previous articles.

**Results:** Multicultural families were prone to be an extreme family according to the FACES III. Their family APGAR scores were lower compared to those of ordinary Korean families. Family dysfunc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women's age, hometown, education level,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and her religion.

**Conclusion:** Multicultural families may show different features compared to typical Korean families. Family physicians needs to be concerned with functional patterns of multicultural families. Further studies should be followed to understand modifiable factors for fixing dysfunc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Keywords:** Family; Function; Cross-culture; Marriage

###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정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통해 조선족 여성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후, 다문화 가정은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혼인의 11.9%가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국제결혼이며, 동 기간 중 결혼한 남성 농업·어업 종사자 8,596명 중 3,525명(41%)이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으로 나타나 다문화가

접수일: 2007년 8월 31일, 승인일: 2009년 1월 31일

\*교신저자: 박훈기

Tel: 02-2290-8741, Fax: 02-2281-7279

E-mail: hoonkp@hanyang.ac.kr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Copyrights © 2009 by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정의 중요성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sup>1,2)</sup>

1980년대까지의 국제결혼은 주로 한국인 여성이 외국남성과 결혼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으며, 일부 통일교 교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본 및 필리핀 여성과 한국남성의 결혼이 있었다. 그 후 1992년 한중수교 이후 과거 동일민족으로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조선족 여성과 한국남성의 결혼이 증가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저 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3D 기피현상으로 인해 농촌지역의 결혼적령기 남녀의 성비의 불균형이 심화, 여성의 사회참여 및 미혼여성의 증가 등의 원인으로 다문화 가정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sup>3,4)</sup>

결혼 이주여성들의 출신국 역시 다양화되고 있는데 1990년대까지는 중국, 일본, 필리핀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으나 2000년도 이후 베트남,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등 다변화 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 출신 여성과의 결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sup>2,5)</sup>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적응에 있어서 초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새로운 언어와 문화에 대한 충격과 적응이며, 이러한 점들이 스트레스가 되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sup>6)</sup>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해 우선 동원 가능한 자원은 가족 내 자원이며, 이의 평가를 위해 정확한 가족기능을 측정하는 것은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가정의에게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의학의 활동영역은 가족중심의 건강관리이며, 가족은 사회구성의 기본단위로서 가족 구성원인 개개인의 성장, 발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요인이며, 인간의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의 상당부분에 가족의 기능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sup>7,8)</sup> 가정의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겪는 변화 및 그에 따른 적응과정이 정상적인 단계를 거치도록 도와주고 향후 초래될 수 있는 여러 문제와 위기들을 예기시키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가족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sup>9)</sup>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가족기능의 측정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가정의에 이해를 향상시키고,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족의 한 형태인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 방법

### 1. 연구대상

2007년 기준 전라남도 화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부의 총 인원은 169명이며,<sup>5)</sup> 이 중 전라남도 화순군내 3개 이주민지원센터에 등록 중인 68명의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는 가족 적응력·결속력 척도(FACES III)와 가족 기능도 지수(Family APGAR score)이다.

가족 적응력·결속력 척도는 Olson<sup>10)</sup>에 의해 1986년 개발되었으며, 가족이 상호의존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가족의 구성원들은 서로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통하여 전체성을 이루고 가족체계에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체계이론과 씨컴플렉스 모델을 근거하고 있다.

씨컴플렉스 모델에 따르면 정상가족이란 조화된 유형의 가족으로 정서적으로 적당하게 연결, 또는 분리되고 변화가 요구되어질 때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이 분명하고 자기표현과 감정이입이 가능한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다.<sup>8,10-13)</sup> 이는 Lim 등<sup>14)</sup>에 의해 번역되어 한국에서도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고 입증된 바 있다.

이 설문은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10문항씩 적응력과 결속력을 측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각 문항 당 1점에서 5점까지의 점수로 계산하여 적응력 결속력 각각 50점이 만점이다. 가족기능의 정도는 총점을 4군으로 분류하여 변화능력에 따른 가족 적응력 지수에 따라 경직된(rigid) 가족 10-19점, 구조화된(structured) 가족 20-24점, 유연한(flexible) 가족 25-28점, 혼돈된(chaotic) 가족 29-50점으로 분류하였고, 정서적 유대감 정도에 따른 가족 결속력 지수에 따라 이탈된(disengaged) 가족 10-35점, 분리된(separated) 가족 36-40점, 연결된(connected) 가족 41-45점, 밀착된(enmeshed) 가족 46-50점으로 분류하고 가족적응력은 수직축으로 하고 결속력을 수평축으로 하여 16가지 가족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화형(balanced), 중간형(mid-range), 극단형(extreme)의 3가지로 나누었다.<sup>10)</sup>

가족 기능도 지수는 Smilkstein<sup>11)</sup>에 의해 개발되었다. 국내 외 많은 연구에서 가족기능을 평가하는데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고 입증된 가족기능에 대한 설문지로, 가족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5개 분야를 측정한다. 가족기능장애의 정도구분은 Smilkstein이 분류한대로 3군으로 분류하여 7-10점은 정상 가

족기능군, 4-6점은 중등도 가족기능장애군, 0-3점은 심한 가족기능장애군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일부 연구에서 가족기능 측정의 유용성이 인정되었으며, 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까지는 나타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족상호관계에 대한 개인적 만족수준을 측정하는데 있어서는 적절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up>11,15,16)</sup>

### 3. 연구방법

연구자는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사 설문자 8명 및 이번 연구의 대상이 될 전라남도 화순군 내 3개 이주민 지원센터 관계자에게 본 연구의 취지 및 설문지 작성법을 설명하였으며, 2008년 8월 18-22일의 기간 동안 훈련된 조사 설문자가 전남 화순군내 이주민지원센터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3개 이주민 지원센터에 등록된 70명의 여성 중 본연구의 취지 및 설문지 작성에 동의한 6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이름을 확인해 동일한 설문지 한사람에게 2회 이상 시행되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설문대상자가 한글 읽고 쓰기에 익숙하지 못한 경우 이주민지원센터 관계자와 이주민 여성의 출신국가 언어에 능통한 자원봉사자가 설문지 내용을 직접 읽어주는 방식으로 설문지 작성을 도왔다.

설문내용으로는 고향, 나이, 부부간 나이차이, 결혼 년수, 학력, 종교, 직업, 남편의 직업, 가족 월수입, 가족수, 가족형태 등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과 해당 다문화 가정의 가족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가족 적응력, 결속력 척도와 가족 기능도 지수를 조사하였다.

### 4. 자료의 처리 및 분석

연구자료 및 통계분석을 위해 SPSS ver. 14.0K를 사용하였으며, 각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 따른 가족기능의 측정을 위해 단변수 분석과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단변수 분석은 카이제곱검정과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이용한 경우 사후검정법으로 분산이 등분산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Tamhane의 T2 검정법을 이용하였으며, 등분산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 Hochberg의 GT2검정법을 사용하였다.

그 다음 단계로 단변량 분석에서 의미 있었던 변수들이 가족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기 위해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 결과

### 1.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나이는 10대 1명(1.5%), 20대 34명(50%), 30대 17명(25%), 40대 16명(23.5%)이었으며, 평균적인 남편과의 나이 차이는 12.4세, 결혼 년수는 4.4년이었다.

출신 국가는 필리핀 18명(26.5%), 베트남 14명(20.6%), 캄보디아 13명(19.1%), 일본 13명(19.1%), 몽고 4명(5.9%), 중국 4명(5.9%), 우즈베키스탄 2명(2.9%)이었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5명(7.4%), 중학교 졸업 이하 19명(27.9%), 고등학교 졸업 이하 26명(38.2%), 대학교 졸업 이상 18명(26.5%)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개신교/천주교 28명(41.2%), 통일교 13명(19.1%), 불교 10명(14.7%)이었으며, 종교 없음이 17명(25.0%)이었다.

남편의 직업분포는 농림축산업 25명(36.8%), 일용직 15명(22.1%), 자영업/서비스업 10명(14.7%), 사무/영업직 5명(7.34%), 생산직 3명(4.4%) 순이었으며, 10명(14.7%)은 남편의 직업이 없다고 대답했다.

본인의 직업으로는 전업주부가 51명(7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어학강사 12명(17.6%), 농림축산업 4명(5.9%), 자영업 1명(1.5%) 순이었다.

가족의 소득은 월수입 100만 원 이하 40명(58.8%), 100-200만원 16명(23.5%), 200만 원 이상 3명(4.4%), 모른다는 응답이 9명(13.2%)이었다.

가족의 형태로는 부부와 자녀 중심의 핵가족이 52가족(76.5%), 시부모와 같이 사는 대가족이 16가족(23.5%)이었으며, 한가족의 가족수는 평균 3.43명이었다(표 1).

### 2. 연구 대상자들의 가족기능

가족 적응력·결속력 척도를 통해서 본 연구 대상자들의 가족적응력의 평균은 24.22였으며, 유형별로는 혼란한 가족 25예(36.8%), 경직된 가족 23예(33.8%), 구조화된 가족 12예(17.6%), 유연한 가족 8예(11.8%)였다. 가족결속력에 있어서는 이탈된 가족 47예(69.1%), 분리된 가족 15예(22.1%), 연결된 가족 6예(8.8%)였으며 밀착된 가족은 없었다. 가족 결속력의 평균은 30.69였다. 가족 적응력과 결속력으로 본 가족유형은 극단형 가족이 35예(51.5%)로 가장 많았으며, 중간형 가족 25예(36.8%), 조화형 가족 8예(11.8%)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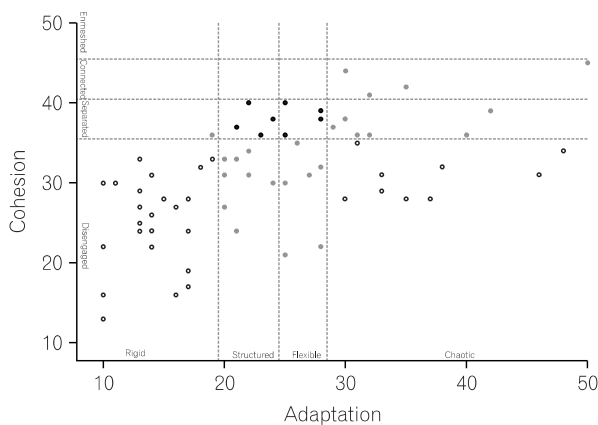
가족기능도지수를 통한 가족기능의 측정에서는 정상 가족기능군 33예(48.5%), 중등도 가족기능장애군 20예(29.4%), 심한 가족기능장애군 15예(22.1%)였으며, 가족기능도지수의

**Table 1.** Distribution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No. (%)	Mean ± SD
Age (y)	-20	1 (1.5)
	20-29	34 (50.0)
	30-39	17 (25.0)
	40-49	16 (23.5)
Age difference		12.4 ± 8.8
Birthplace	Philippines	18 (26.5)
	Vietnam	14 (20.6)
	Cambodia	13 (19.1)
	Japan	13 (19.1)
	Mongolia	4 (5.9)
	China	4 (5.9)
	Uzbekistan	2 (2.9)
Number of year marriage		4.4 ± 3.7
Education level	Less than public school	5 (7.4)
	Junior high school	19 (27.9)
	Senior high school	26 (38.2)
	Above than college grade	18 (26.5)
Religion	Protestant/Catholic	28 (41.2)
	Buddhist	10 (14.7)
	Unification church	13 (19.1)
	None	17 (25.0)
Occupation (husband)	Farming/forestry/livestock industry	25 (36.8)
	Daily pay worker	15 (22.1)
	Manufacturer	3 (4.4)
	Office worker/salesman	5 (7.3)
	Self-employed/service industry	10 (14.7)
	None	10 (14.7)
Occupation	Farming/forestry/livestock industry	4 (5.9)
	Self-employed/service industry	1 (1.5)
	Language teacher	12 (17.6)
	Housewife	51 (75.0)
Monthly family income (× 10 <sup>3</sup> won)	-999	40 (58.8)
	1000-1999	16 (23.5)
	2000-2999	3 (4.4)
	Unknown	9 (13.2)
Family structure	Nuclear	52 (76.5)
	Extended	16 (23.5)
Number of family members		3.4 ± 1.0

**Table 2.** Distribution of FACES III and family APGAR score.

Characteristics	No. (%)	Mean ± SD	
Adaptability	Rigid	23 (33.8)	24.2 ± 10.1
	Structured	12 (17.6)	
	Flexible	8 (11.8)	
	Chaotic	25 (36.8)	
Cohesion	Disengaged	47 (69.1)	30.7 ± 6.9
	Separated	15 (22.1)	
	Connected	6 (8.8)	
Family type	Balanced	8 (11.8)	6.3 ± 3.4
	Mid-range	25 (36.8)	
	Extreme	35 (51.5)	
Family APGAR score	Severely dysfunctional	15 (22.1)	6.3 ± 3.4
	Moderate dysfunctional	20 (29.4)	
	Highly functional	33 (48.5)	



**Figure 1.** Distribution of adaptation and cohesion score in multicultural family.

Adaptation categorized 4 subgroup: Rigid (10–19), Structured (20–24), Flexible (25–28), Chaotic (29–50), Cohesion categorized 4 subgroup: Disengaged (10–35), Separated (36–40), Connected (41–45), Enmeshed (46–50).

Black dot indicate Balanced family categorized by Adaptation and Cohesion. Gray dot indicate Mid-range family categorized by Adaptation and Cohesion. Bubble dot indicate Extreme family categorized by Adaptation and Cohesion.

평균은 6.29였다(표 2, 그림 1).

**3. 적응력과 결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력이 있었다. 초등

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 적응력의 평균이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2). 결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출신국가와 동거가족수가 있었다. 출신 국가별 결속력의 평균은 기타지역(중국: 38.5±5.1, 몽골: 35.3±5.0, 우즈베키스탄: 33.0±7.1), 일본,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순이었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동거가족수가 증가할수록 가족결속력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3)(표 3).

**4. 가족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적응력과 결속력으로 본 가족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출신국가와 동거가족의 숫자 그리고 종교가 있었다. 비교적 필리핀과 캄보디아 출신은 극단형 가족이 많았고, 기타지역과 베트남 출신은 조화형 가족이 많았으며, 각 출신 국가별 가족유형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P<0.01). 동거가족의 경우 같이 사는 가족의 수가 증가할수록 조화형 가족이 많고 극단형 가족이 적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2). 종교의 경우 통일교를 믿는 경우 중간형 가족이 많았으며, 불교를 믿는 경우 극단형 가족이 많았으며, 종교에 따른 가족유형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표 4).

**5. 가족 기능도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족 기능도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출신국가와

**Table 3.** Comparison of adaptation and cohesion according to majo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	Adaptation		Cohesion			
	Mean± SD	P-value	Mean± SD	P-value		
Age (y)	-29	24.7 ± 11.0	0.07*	30.5 ± 6.7	0.20*	
	30-39	27.4 ± 9.5		32.9 ± 7.4		
	40-50	19.3 ± 6.9		28.6 ± 6.3		
Birthplace	Philippines	20.8 ± 9.3	0.08*	28.3 ± 8.1	< 0.01*	a <sup>†</sup>
	Vietnam	22.6 ± 7.1		31.9 ± 5.5		a,b
	Cambodia	24.6 ± 3.1		26.9 ± 6.2		a
	Japan	24.3 ± 7.2		32.3 ± 5.2		a,b
	Others (Mongolia, China, Uzbekistan)	31.9 ± 11.8		36.1 ± 5.2		b
Education level	Less than public school	13.8 ± 2.8	0.02*	24.2 ± 7.6	0.15*	a <sup>‡</sup>
	Junior high school	28.3 ± 11.7		30.4 ± 5.8		b
	Senior high school	22.3 ± 6.9		31.3 ± 6.2		b
	Above than college grade	25.6 ± 11.4		31.9 ± 8.2		b
Family structure	Nuclear	24.3 ± 10.3	0.88 <sup>§</sup>	30.6 ± 7.4	0.84	
	Extended	23.9 ± 9.7		31.0 ± 5.2		
Number of family members	2	26.0 ± 13.3	0.65*	27.7 ± 6.8	0.03*	a <sup>†</sup>
	3	23.0 ± 9.7		29.4 ± 8.1		a,b
	4-	24.9 ± 9.3		33.3 ± 4.1		b
Religion	Protestant/Catholic	25.2 ± 11.0	0.92 <sup>†</sup>	30.40 ± 7.6	0.35 <sup>†</sup>	
	Unification church	23.9 ± 6.7		33.0 ± 5.3		
	Buddhist	23.1 ± 12.7		27.8 ± 3.5		
	None	23.5 ± 9.5		31.1 ± 8.0		

\*The P value was calculated with the use of the one way ANOVA test, <sup>†</sup>The same letters indicate non-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ased on Hochberg's GT2 multiple comparison test, <sup>‡</sup>The same letters indicate non-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ased on Tamhane's T2 multiple comparison test, <sup>§</sup>The P value was calculated with the use of the Student t-test.

종교가 있었다. 다른 출신국가에 비해 캄보디아 출신은 가족 기능도지수가 높았으며, 필리핀 출신은 가족기능도 지수가 낮았고, 이로 인해 가족 기능도 지수의 평균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1). 종교의 경우 개신교/천주교를 믿는 경우 다른 종교를 믿는 경우보다 가족기능도지수의 평균이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P=0.04), 사후검정 상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표 5).

### 6.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을 통한 주요 요인들과 가족 기능의 관계

가족 기능에 독립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결정하기 위해 적응력과 결속력, 가족 기능도 지수를 종속변수로 정의하고, 이주여성의 나이와 출신국가, 교육정도, 동거 가족수, 종교를 독립변수로 정의한 뒤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을 시행하였다.

적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출신국가가 있었으며, 결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이, 출신국가, 교육정도, 동거 가족수가 있었다. 가족 기능도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

**Table 4.** Comparison of family type according to majo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		Balanced	Mid-ranged	Extreme	P-value
Age group (years)	-29	5 (14.3%)	9 (25.7%)	21 (60.0%)	1.00*
	30-39	3 (16.7%)	9 (50.0%)	6 (33.3%)	
	40-50	0 (0.0%)	7 (46.7%)	8 (53.3%)	
Birthplace	Philippines	0 (0.0%)	6 (33.3%)	12 (66.7%)	< 0.01 <sup>†</sup>
	Vietnam	3 (21.4%)	5 (35.7%)	6 (42.9%)	
	Cambodia	0 (0.0%)	2 (15.4%)	11 (84.6%)	
	Japan	1 (7.7%)	9 (69.2%)	3 (23.1%)	
	Others (Mongolia, China, Uzbekistan)	4 (40.0%)	3 (30.0%)	3 (30.0%)	
Education level	Less than public school	0 (0.0%)	0 (0.0%)	5 (100.0%)	0.10*
	Junior high school	2 (10.5%)	6 (31.6%)	11 (57.9%)	
	Senior high school	4 (15.4%)	11 (42.3%)	11 (42.3%)	
	Above than college grade	2(11.1%)	8 (44.4%)	8 (44.4%)	
Family structure	Nuclear	6 (11.5%)	20 (38.5%)	26 (50.0%)	0.84*
	Extended	2 (12.5%)	5 (31.3%)	9 (56.3%)	
Number of family members	2	0 (0.0%)	3 (27.3%)	8 (72.7%)	0.02*
	3	3 (10.0%)	10 (33.3%)	17 (56.7%)	
	4-	5 (18.5%)	12 (44.4%)	10 (37.0%)	
Religion	Protestant/Catholic	2 (7.1%)	9 (32.1%)	17 (60.7%)	< 0.01 <sup>†</sup>
	Unification church	1 (7.7%)	10 (76.9%)	2 (15.4%)	
	Buddhist	0 (0.0%)	1 (10.0%)	9 (90.0%)	
	None	5 (29.4%)	5 (29.4%)	7 (41.2%)	

\*The P value was calculated with the use of the linear by linear association, <sup>†</sup>The P value was calculated with the use of the Fisher's exact test.

인으로 출신국가, 교육정도, 종교가 있었다(표 6).

## 고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중 출신국의 경우 전라남도 의회에 제출된 화순군의 외국인 주부 현황<sup>5)</sup>에 비해 중국, 일본, 필리핀 출신의 여성비율이 낮아 상당부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번 상기 3개국의 여성들은 비교적 한국에 온지 오래되어 한국어와 문화교육이 중심인 이주민지원센터에 등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52가족(76.5%)은 부부와 자녀중심의 핵가족이었으며, 25가정(36.8%)에서만 농림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언

론 등에 의해 흔히 정형화된<sup>2)</sup>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농촌의 결혼이민여성의 모습과는 차이를 보였다. 가족의 월 소득은 한 달에 100만 원 이하가 40가족(58.8%)으로 다문화 가정의 52.9%가 평균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2005년 연구결과<sup>17)</sup>나 월평균소득 100만 원 이하가 48.9%라는 연구결과<sup>4)</sup>와 일치하여 다문화 가족의 경제적 자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 가정의 가족적응력 평균은 이전의 국내의 연구와 비교하여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가족결속력은 비슷하거나 낮은 결과를 보였지만 연구대상자의 특성이 달라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다.<sup>10,13,14)</sup> 가족유형에 따른 분류 상 극단형 가족의 비율이 51.5%로 기존 연구의 7.3-11.9%에 비해 매우 높았다. 이처럼 다문화 가정에서 극단형 가족이 많은 이유는

**Table 5.** Comparison of family APGAR score according to majo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		Mean ± SD	P-value	
Age (years)	–29	7.0 ± 3.1	0.13*	
	30–39	6.1 ± 3.8		
	40–50	4.9 ± 3.1		
Birthplace	Philippines	3.9 ± 3.5	< 0.01*	a <sup>†</sup>
	Vietnam	7.2 ± 3.1		a,b
	Cambodia	7.6 ± 3.1		b
	Japan	6.4 ± 2.7		a,b
	Others (Mongolia, China, Uzbekistan)	7.4 ± 2.8		a,b
Education level	Less than public school	5.8 ± 4.5	0.67*	
	Junior high school	7.1 ± 3.5		
	Senior high school	5.9 ± 2.9		
	Above than college grade	6.1 ± 3.6		
Family structure	Nuclear	6.1 ± 3.5	0.34 <sup>‡</sup>	
	Extended	7.0 ± 2.9		
Number of family members	2	6.8 ± 3.2	0.71*	
	3	5.9 ± 3.6		
	4–	6.5 ± 3.3		
Religion	Protestant/Catholic	5.1 ± 3.5	0.04*	a <sup>†</sup>
	Unification church	6.9 ± 2.7		a
	Buddhist	5.8 ± 3.6		a
	None	8.0 ± 2.8		a

\*The P value was calculated with the use of the one way ANOVA test, <sup>†</sup>The same letters indicate non-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ased on Hochberg's GT2 multiple comparison test, <sup>‡</sup>The P value was calculated with the use of the Student t-test.

경직된 가족(33.8%)과 혼란한 가족(36.8%)이 많으며, 이탈된 가족(69.1%)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해석된다.

가족기능도지수의 평균은 6.30±3.4로 타 연구 가족 기능도 지수 평균(6.5–7.2점)<sup>8,18-23)</sup>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왔으며, 특히 가족 기능도 지수 7–10점인 정상가족기능군의 비율(48.5%)이 타 연구들(48.7–83.4%)에 비해 비슷<sup>24)</sup>하거나 낮은<sup>18-23)</sup>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 가정의 가족기능은 한국의 일반가정에 비해 낮으리라고 생각된다.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이주 여성의 연령, 출신국가, 학력, 동거가족의 수, 종교가 있었다.

이주여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족 결속력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통계적인 유의성은 보이지 않으나 적응력과 가족 기능도 지수 역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단순

히 이민 초기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은 아닐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한국생활이 익숙해진 뒤 발생한 가족 내 문제 때문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신 국가별 특징을 보면 대체로 우리나라와 가족환경이 비슷한 중국 출신이 적응력과 결속력 모두 높았다. 필리핀 출신의 경우 다른 국가 출신보다 적응력, 결속력 모두 비교적 낮게 나왔고 가족 유형상 극단형 가족이 많았으며, 가족기능도 지수도 다른 국가 출신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필리핀 부인들은 가부장적 부부관계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sup>25)</sup>’, ‘필리핀 이주여성 집단에서 중국, 일본 이주여성에 비해 가족의사결정에의 참여 및 가계비 관리권이 떨어진다<sup>1)</sup>’는 선행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하며, 이는 필리핀의 가족 특성이 어



**Table 6.** Multiple linear regression for adaptation, Cohesion and family APGAR score.

Variable	Adaptation R <sup>2</sup> = 0.26			Cohesion R <sup>2</sup> = 0.45			Family APGAR score R <sup>2</sup> = 0.41		
	β-value	SE	P-value	β-value	SE	P-value	β-value	SE	P-value
Age	-0.42	0.27	0.13	-0.44	0.16	<0.01	-0.12	3.74	1.00
Birthplace									
Philippines	-		Reference	-		Reference	-		Reference
Vietnam	6.43	5.41	0.24	4.61	3.17	0.15	4.63	1.60	<0.01
Cambodia	11.53	6.93	0.10	-0.16	4.06	0.97	5.34	2.05	0.01
Japan	7.81	7.26	0.29	0.88	4.25	0.84	-0.86	2.15	0.70
Mongolia	9.03	7.77	0.25	2.98	4.55	0.52	1.47	2.30	0.53
China	17.46	5.65	<0.01	10.22	3.31	<0.01	4.74	1.67	<0.01
Uzbekistan	11.91	7.85	0.14	6.69	4.60	0.15	4.86	2.33	0.04
Total education year	0.94	0.57	0.10	0.89	0.33	<0.01	0.42	0.17	0.02
No. family members	0.54	1.42	0.70	2.86	0.83	<0.01	0.83	0.42	0.05
Religion									
None	-		Reference	-		Reference	-		Reference
Protestant/Catholic	8.11	5.18	0.12	-1.28	3.03	0.68	-0.74	1.53	0.63
Buddhist	-0.53	3.94	0.89	-3.70	2.31	0.11	-2.79	1.17	0.02
Unification church	5.88	9.00	0.52	3.70	5.27	0.49	3.38	2.67	0.21

머니가 가족관계의 중심이 되는 모중심적(matrifocal) 사회<sup>26)</sup>라는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캄보디아 출신 여성의 경우 다른 국가 출신에 비해 가족결속력이 낮아 이탈된 가족의 비율(100%)이 높았으며, 가족 유형상 극단형 가족의 비율(84.6%)이 많았으나, 가족기능도 점수는 다른 국가 출신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학력과 가족기능의 관계를 보면 이주여성의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 적응력은 유의하게 감소했으며, 학력이 증가할수록 결속력 및 가족 기능도 지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의 적응력이 높다는 Ahn<sup>13)</sup>의 연구 및 부모의 학력수준이 가족의 적응력과 결속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Ko 등<sup>27)</sup>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핵가족과 대가족은 가족기능상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동거가족수가 증가할수록 가족결속력 및 가족 유형상 조화형 가족의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Ahn<sup>13)</sup>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종교에 따른 가족 기능은 종교가 없는 경우 조화형 가족이 많았고, 가족 기능도 지수의 평균도 높았다.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sup>13,28)</sup>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며 출신국가가 혼란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가족의 월 소득은 다른 선행연구<sup>13,14,27)</sup>에서는 가족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적응력 및 결속력이 높게 나왔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가족의 월 소득과 적응력 및 결속력, 가족기능도지수와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은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같이 살아 가야 할 사람들이다. 하지만 현재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들은 한글교실이나 한국 문화체험 등에 국한되어 있을 뿐이며 이러한 교육과정은 다문화가정 여성이 한국사회에 되도록 빨리 완전하게 적응하는 법을 가르쳐 줄 뿐 남편이나 가족 그리고 이웃에게 그들과 같이 사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결과 상으로도 보이듯이 가족기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결혼 전 출신 국가이며, 이는 살아온 가족 및 사회 환경의 차이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각각 다른 가족 및 사회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을 다문화 가정 여성이라는 하나의 구성 집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최소한 출신 국가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대상을 전라남도 일개 군으로 한정하였으며, 설문이 이주여성의 정착을 돕는 이주민지원센터 중심으로 이루어져 이미 한국생활에 적응을 한 이주여성이나 외출의 자유가 없는 열악한 권리를 가지는 이주여성에게 접근이 제한되어 모집단을 완전히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점이 있으며 한글로 된 설문 내용을 이주여성의 출신국가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설문의 타당도와 신뢰도의 저하가 가능하다는 점과 설문의 연구 대상자의 수가 적어 세부 가족 유형 당 충분한 수가 확보되지 않아 통계의 신뢰성이 저하된 점 등이 있었다. 향후 후속연구에서 지역과 연구 대상자의 수를 의미 있게 증가시키고 가족 기능 장애에 대한 교정 가능한 위험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감사의 글

이번 연구에 노고를 아끼지 않고 협조해 주신 화순군청이주센터, 중부교회 로템나무, 온누리교회 관계자 분들께 지면을 빌려 감사하다는 말을 드립니다.

## 요약

**연구배경:** 최근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정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 측정과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측정을 위해 시행되었다.

**방법:** 전라남도 일개 군 지역 3개 이주민지원센터에 등록 중인 68명의 다문화가정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가족적응력·결속력척도(FACES III)와 가족 기능도 지수(Family APGAR score)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동일한 설문으로 한국인 가정에 실시한 타 연구결과와 비교하였다.

**결과:**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 측정결과 타 연구에 비해 극단형 가족유형이 많았으며, 가족기능도지수의 평균이 낮았다. 다문화가정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이주여성의 연령, 출신국가, 학력, 동거가족의 수, 종교가 있었다.

**결론:** 다문화 가정의 가족기능은 전형적인 한국가정의 가족기능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정의가 다문화 가족의 가족기능을 평가할 때 가족별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별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추가연구에서 다문화 가정 가족 기능 장애에 대한 교정 가능한 위험요

소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심단어:** 가족; 기능; 다문화; 결혼

## 참고문헌

1. Yang SM. Adjustment and an aspect of family life of the rural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focusing on the Chinese (Korea tribe), Japanese, and Philippine immigrant woman and their husband. *J Rural Soc* 2006; 16: 151-79.
2. Kim HS. Migrant brides and making of a multicultural society: sociological approach to recent discourse on "Multicultural Korea". *Korean J Sociol* 2008; 42: 36-71.
3. Kwon BS. The impact of communication and cultural identity on marital satisfaction among Kosian housewives in rural areas. *J Korean Acad Soc Welfare* 2006; 58: 109-34.
4. Kim ON.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marital conflicts of immigrant women. *J Korean Fam Stud Assoc* 2006; 18: 63-106.
5. Park HM, Moon ST. Analysis on the actual condition of female immigrants in rural area for social adjustment education. *J Soc Korean Agric Educ* 2008; 41: 69-91.
6. Kweon GY, Park KW. A study on influence factors to the mental health of foreign wives. *Soc Res* 2007; 14: 187-219.
7. Rakel RE. *Textbook of family practice*. 4th ed. Philadelphia: WB Saunders Co; 1990.
8. Kim HK, Jang SH, Lee SM, Jeong ES. A study on family APGAR score and FACE III of the patients of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ist. *J Korean Acad Fam Med* 1991; 12: 36-45.
9. Taylor RB, Buckingham JL, editors. *Family medicine: principles and practice*. New York: Springer-Verlag; 1988.
10. Olson DH. *Family assessment and intervention: the circumflex model of family system*. Philadelphia: Haworth Press; 1989.
11. Smilkstein G. The cycle of family function: a conceptual model for family medicine. *J Fam Pract* 1980; 11: 223-32.
12. Bae JM, Kim YJ. Validity and reliability of FACES 3 When applied to the one of the family members. *J Korean Acad Fam Med* 1994; 15: 312-21.
13. Ahn YH.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adaptability and family cohesion and male adolescent' mental health [dissertation]. Seoul: Yonsei Univ; 1988.
14. Lim JH, Lee KR, Oh MK, Kwak KW, Yoon BB. A study on

- reliability and validity of FACES 3. *J Korean Acad Fam Med* 1989; 11: 29-33.
15. Yoon BB, Kwak KW. The study of family APGAR score as the evaluation method of the family function. *J Korean Acad Fam Med* 1985; 6: 13-7
  16. Kang SK, Yoon BB, Lee HR, Lee DB, Shim UT. A study of family APGAR score for evaluating family function. *J Korean Acad Fam Med* 1984; 5: 6-13.
  17. Seol DH. Foreign wives' life in Korea: focusing on the policy of welfare and health. Seoul: Minister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2005.
  18. Park HE, Kwak BC, Jeong ES. A study on family APGAR score in chronic illness patients. *J Korean Acad Fam Med* 1988; 9: 62-3.
  19. Song AK, Ha JH, Kim YO, Jung SN, Kim BS. The recognition of family medicine among local community inhabitants and the comparison of family APGAR scores. *J Korean Acad Fam Med* 1992; 13: 636-42.
  20. Choi EH, Bae JS, Kim JS. A study of the differences in family APGAR score between family members. *J Korean Acad Fam Med* 1988; 9: 34-9.
  21. Park EY, Cha YB, Jung YS, Seo JH, Jung JS. Evaluation of family function of children-parents hospitalized through the emergency room and those hospitalized through the outpatient department. *J Korean Acad Fam Med* 1995; 16: 711-20.
  22. Kim IS, Lee SH, Lee KM, Kim SY, Jung SP. The difference of marriage-satisfaction score among family groups according to the family APGAR score and family adaptability cohesion evaluation scale. *J Korean Acad Fam Med* 1993; 14: 797-803.
  23. Kim CM, Lee JH, Lee JH, Park ES. The influence of family functioning on psychosocial dysfunction children. *J Korean Acad Fam Med* 2001; 22: 1467-75.
  24. Lee YM, Choi YS, Hong MH. Relationship of family function with life event stress and depression in healthy adult males. *J Korean Acad Fam Med* 1997; 18: 1483-99.
  25. Yoon HS. Conflict and adjustments of foreign wives married to Korean men: filipina wives in rural Korea. *J Local Hist Cult* 2005; 8(2): 1-25.
  26. Kim MJ. The changing face of families in Korean society and Filipina wives in rural areas. *Issues Fem* 2007; 7(2): 213-48.
  27. Ko BS, Shim WS, Kang YJ, Shim JY, Lee HR, Ahn DH. FACES III in the Korean adolescents. *J Korean Acad Fam Med* 2000; 21: 615-24.
  28. Lee KR, Lim JH, Oh MK, Lee HR, Youn BB. A comparative study on family function between the psychiatric families and the normal families. *J Korean Acad Fam Med* 1991; 12: 30-5.